

News

금리상한 주담대 한달 가입 단 20건 왜?

매일경제

금융당국 주도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실적, 기대와 달리 미미한 것으로 집계
5대 은행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가입 실적 20건(29억 6,300만원)... 기존 주담대보다 금리가 더 높다는 점이 실패 요인으로 꼽혀...

연봉의 2.7배까지 신용대출한 은행 어디? 금융당국 "2배까지만 해라"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현재 연봉의 2배 수준인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가 적정한지를 두고 내부 검토 중
일부 은행이 연봉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 내준 사실 드러나... 금감원 창구지도 및 신용대출 한도 적정성 검토

저축은행 여신, 6월 한달 만에 3조원 증가... 집계 이래 최대

조선비즈

국내 저축은행이 개인과 기업 등에 빌려준 돈의 잔액, 6월 한 달 사이 3조원 넘게 불어나...
동 월간 증가폭은 한은 집계 시작 1993년 9월 이후 최대치... 저축은행 증금리대출 영업 확대로 여신 규모 증가

신한금융지주 1주당 300원 분기 배당... 배당총액 1,600억

한국경제

13일 이사회를 열고 2분기 기준 1주당 300원의 분기 배당 결정... 2001년 지주 출범 이후 처음 분기 배당
지난 금감원의 의견 전달로 논란이 있었으나, 신한금융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 금감원이 분기배당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

달러 하락하면 보험사가 책임지라는데...달러보험 퇴출되나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환차손을 보험사가 다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생보업계는 무리한 요구라며 버티는 중
환헤지 상품 대체로 6개월짜리라, 보험에 맞지 않고 추가 비용 발생... 상품 개발 곤란으로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후손해를 줄고 역대급 실적 냈는데 "보험료는 안 내려"...왜?

더팩트

주요 보험사들 올 상반기 호실적...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 결과
보험사들, 보험료 조정은 보험사 자율사항 및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 미지수를 근거로 요율인하 어렵다는 입장

토스증권,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자본 확충 랠리

이데일리

토스증권,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약 1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정
해외주식 서비스 준비 중이라 등 자금을 IT 인프라 등에 사용할 예정

대신증권, 2분기 순이익 3,845억원... 전년비 흑자전환

한국경제

2분기 당기순이익 3,845억원, 영업이익 5,671억원 실적 기록... IB와 WM 부분 성장이 주효
IB부문은 IPO와 PF 분야 실적, WM부문은 펀드, 신탁, 랩 중심의 자산관리 수수료가 각각 증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